

칠불암과 마곡사 두 山寺의 추억

외롭고도 호사스런 한낮의 시집읽기

윤후명

소설가

유난히도 더위를 타는 나는 여름이면 꼼짝을 하기가 어렵다. 봄이 갈 무렵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숨이 턱에 닿으며 온몸에 열이 가득 찬다. 누군들 그렇지 않으랴만 유난히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나는 어디론가 떠나며 그 떠남은 글쓰는 일, 책읽는 일과 연관되어 있으니, 정말 혹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소설가가 갓 되었을 때, 잡지사에 있던 Y형의 청탁에 의해 김동리선생의 「역마」를 읽으며 찾아갔던 여름 七佛庵. 그 잡지의 기획은 독자가 「역마」의 무대를 찾아간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선정된 두명의 독자는 과연 아리따운 아가씨들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두 아가씨는 작품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진기자의 요청에 따라 그 미모만 뽐낼 뿐이어서 여간 씁쓸한 것이 아니었으나, 달맞이꽃을 머리에 꽂고 올라간 칠불에서 노스님도 그 모습을 보고는 “희한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물론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젊은 여성의 미모를 찬탄하는 소리만으로 들은 것은 아니었다. 저러한 아름다움도 마침내는 시들어 스러지고 말지나…… 한때의 삶이여 무상하도다…….

그 한여름에 높은산을 올라가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는 난생 처음 ‘더위를 먹었다’는 그 상황에 이르러 그뒤 며칠동안 물 한모금 제대로 못먹고 끙끙 앓아야 했다. 그런 뒤에야 간신히 「역마」를 다시 꺼내놓고 그 책에 실린 다른 작품들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상 작품은 읽지도 않고, 자기들은 ‘위 팬티’는 입지 않는다고 이른바 ‘노브라’에 대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던 그녀들을 생각하며,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있거나 않은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해 여름 특별히 떠올리는 것은 그 무더위 속에서 소설책을 옆구리에 끼고 산에 올랐다는 것과 또 더위를 먹어 비실거리는 몸으로 읽고 쓰기를 해야 했다는 것이 참으로 고생스럽게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뒤로도 무릇 여름철에는 그저 시원하게 쉬고만 싶다는 바람은 그만 무산되고 나는 늘 시달리고만 있으니 팔자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름철의 책읽기. 생각만 해도 덥고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나는



뜻밖에도 여름철에 책과 더욱 가까워지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고개를 갸웃거리다. 실제로 나는 문학하는 후배들에게 여름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여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여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가을을 헛되이 맞을 것이다. 어쩌면 여기서의 나는 농부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리하여 나는 너무나 널리 알려진 릴케의 시 한 구절을 떠올리는 것이다. ‘지난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가을」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물론 가을의 풍요한 수확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 풍요한 수확을 위해 여름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 시인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름에 맘을 흘리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여름이 오면서 나는 어떤 소설과 마주하고 앉게 되었다. 책이 아니라 원고이다. 「살푸는 길라잡이」라는 꽤나 간간하다 싶은 제목이 붙어 있는 소설인데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온 데는 다소 사연이 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나는 여행을 떠났었다.

어디 가서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남해의 섬을 돌아 내륙을 여기저기 헤맸어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기만 하던 어느날이었다. 충남 공주에 이르러 어디로 갈까 궁리하던 나는 문득 마곡사를 떠올렸다. 그래 그곳으로 가보자.

내가 마곡사를 떠올린 것은 예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곳으로 가서 얼마동안 묵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배낭에 쌀 몇되와 시집 몇권을 넣고 집을 떠났던 것이다. 山寺에서 한 여름 시집을 읽으며 시를 쓰리라. 나는 그무렵 시에 병들어 있는 문학청년이었다.

“저 위 암자로 가 보시오.”

절로 찾아가서 묵을 만한 곳이 없겠느냐는 고등학생의 물음에 젊은 스님은 대답했다. 이윽고 계곡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도착한 작은 암자. 그 방에서 나는 「전후문제시집」을 펼쳐놓았던 것이다.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는 매미소리에 옥수수알이 영그는 한낮, 산사의 마루에 나와 앉아 시집을 읽는다는 것은 외롭고도

호사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제멋에 거위 끄적거렸던 몇편의 시. 여름날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

나는 25년도 더 지난 아득한 옛시절을 눈에 그리며 곧장 마곡사행 버스에 올랐고, 얼마 지나 그 암자에 이를 수가 있었다.

예전에 내가 시집을 읽던 암자에서 또 옛된 비구니를 만난 나는 방에 들어가 차까지 얻어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스님이 된 지 한달 남짓한 그녀의 속명은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 범명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녀와 헤어져 암자를 내려온 나는 절 아래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해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 얼마 뒤에 나는 우편으로 배달되어온 두툼한 원고봉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녀가 속세를 떠나기 전에 쓴 소설이었다. ‘한때는 내게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어주었던 종이몽치’라고 그녀는 덧붙이고 있었다. ‘며칠째 옛날을 찢어발기는 작업으로 터무니없이 바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소설을 읽고 이어서 헨리 밀러와 박양호를 읽고 또 시집을 읽으리라 마음먹는다.

사실 등불과 가까이하는 계절이라는 가을을 비롯하여 봄이든 겨울이든 책읽기에 좋은 계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나는 그 계절들에는 자연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여름은 쉽게 짓무르는 내 살성에 공포를 던지며 다가오지만 그런만큼 나는 항상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계절처럼 엉거주춤 있다가 당하지를 않고.

집 나서면 고생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무엇을 하겠는가. 더군다나 찢는 퇴약별 아래서. 그리하여 다시 오는 가을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하고.